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운영 실태 조사*

- 영양사의 배치에 따른 영향 -

조 미 숙

배화여자전문대학 식품영양과
(1998년 2월 접수)

Management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 in Day-care Center*

Mi-Sook Ch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Baewha Women's Junior College

(Received February, 1998)

Abstract

Although it is increasing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in Korea, but the quality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 are not increased suffici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s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 in day-care centers. Questionnaire were sent to the directors of 750 day-care centers and 253 returned the complete answers. Staffing structure revealed that only 13% of the facilities had a dietitian. And compared with centers without a dietitian, there were more centers having nutritional standards, using facilities for service, and having long-term planning of meals in centers with a dietitian. In the using of foodservice budget, the centers having dietitian consumed more money for subsidiary dishes than for the staples. All centers needed increment of supplementation for the cost of foodservice and for hiring a dietitian. To improve the quality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s in day-care center, foodservice practices have to be conducted by professional personnel and to confirm the standard of service and to inspect the management of food and nutritional service.

I. 서론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는 연평균 45.3%, 보육아동수는 49.5% 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매년 약 2,000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것은 보육시설 아동들이 매년 약 12-15만명씩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보육시설의 양적인 팽창에는 반드시 보육내용의 질적인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Ransburg⁴⁾는 보육에서의 양질의 서비스(high quality service)에 '적

당한 영양공급'을 포함시켰으며, 보육시설에서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때 유아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원활한 발달을 하게 되고, 부모도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게되므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에는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영양과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아동들은 성장과 발육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며 이때의 영양관리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 가정에서의 개별적인 영양관리와 비교해 볼때 보육시설에서의 급식관리는 질적, 양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 본 연구는 1996년 보건 의료기술연구개발비의 지원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의 영양관리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의 세부 과제로 수행되었음.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영양과 급식관리 측면에서 가정에서와 같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⁵⁾. 유아기의 부적절한 영양관리는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식사습관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된다⁶⁾.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3조에는⁷⁾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영양관리의 내용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해 주며, 바른 식사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균형잡힌 영양관리는 유아들의 권장량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적인 식단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보육시설에 영양사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준에서는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였고, 이것 또한 동일 시, 군, 구 안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과 영양관리에 관한 몇 편의 연구가 있으나⁸⁻¹¹⁾ 영양사의 배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식과 영양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영양사의 배치상태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과 영양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보육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보육시설은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에 등록된 전국의 보육시설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사의 배치현황, 급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750개 시설의 원장을 대상으로 1996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친후 배부하였으며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사항 및 보육시설의 운영특성에 관한 6문항, 급식관리 현황에 대한 29문항, 구매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5문항 등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보육시설의 급식관리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5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평가에 사용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반송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원장에게 보내뒤 전화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정확하게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253부(회수율 33.7%)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산술평균, 표준편차 및 백분율 등 기술 통계량을 구하였고, 영양사 유무에 따른 차이는 2표본 t 검증 및 chi-square 검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았다. 보육시설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총 253개의 보육시설중 서울지역에 위치한 것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기지역으로 20.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부산(14.1%)이었으며, 인천, 강원, 광주, 전라, 경상, 충청도 등 전국을 포함하였다. 보육시설의 종류는 민간개인 보육시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법인 시설이 32.5%, 국공립탁아시설이 30.2%였고, 직장내 탁아시설은 1.2%에 불과하였다. 보육시설의 설립 기간은 평균 8.2년 이었으며, 최소 1년에서 최고 59년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총 인가된 정원은 평균 71.7명 이었고 종일반의 경우 2-3세반이 평균 35.4명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았고 만 3세 이상이 16.7명, 12개월 이하가 15.3명, 1-2세가 12.4명으로 나타났다. 반일반의 경우도 종일반과 같은 경향이어서 2-3세반이 26.9명으로 가장 인원이 많았으며, 12개월 이하가 24.4명, 3세 이상이 평균 17.3명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보육비가 평균 67.9%로 가장 많았고, 정부보조가 41.1%, 공공단체에 의한 보조가 16.4%, 종교단체에

<표 1>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특성

보육시설의 특성	N	Mean	Std Dev
설립된 기간(연)	235	8.2	8.5
총 인가받은 정원(명)	249	71.7	41.9
종일반			
12개월 이하	46	15.3	24.1
만1-2세	217	12.4	10.7
2-3세	235	35.4	29.2
만 3세 이상	113	16.7	15.7
반일반			
12개월 이하	10	24.4	20.5
만 1-2세	61	8.1	10.0
2-3세	93	26.9	22.3
만 3세 이상	52	17.3	17.7
재원조달방식(%)			
보육비	222	67.9	25.1
정부보조	154	41.1	18.2
공공단체보조	9	16.4	13.0
종교단체보조	23	12.0	10.4
기타	27	17.6	21.9

〈표 2〉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보육현황과 재원조달현황

		민간개인 (n=83)	민간법인 (n=82)	국공립 (n=76)	직장내 (n=3)
보육현황 (명)	평균 인가된정원	40.7±27.1 ¹⁾	93.7±38.9	82.7±35.6	48.0±21.7
	평균보육교사수	5.8± 2.1	7.4± 2.4	6.4± 2.2	9.0± 0.0
	보육교사일인당 아동수	11.9± 3.8	12.5± 1.6	14.8± 1.0	8.1± 0.0
재원조달현황 (%)	보육비	93.2±15.4	53.0±18.6	57.1±17.3	65.0± 7.1
	정부보조	22.7±20.8	45.2±16.6	41.5±16.2	20.0± 0.0
	공공단체보조	0.0	13.5±17.7	17.5±10.6	25.0± 7.1
	종교단체보조	15.0± 7.1	13.2±12.6	8.3± 6.1	0.0
	기타	15.0±13.2	13.1±10.7	6.6± 3.2	9.0± 0.0

1) 평균±표준편차

의한 보조가 12.0%로 각각 나타났다.

아동들의 보육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른 보육현황을 조사하였다(표 2). 평균 정원은 민간법인이 9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국공립으로 82.7명, 민간개인은 40.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육교사의 수도 정원이 많은 민간법인에서 7.4명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6.4명, 민간개인 보육시설이 5.8명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수를 보육아동과 비교해 보면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보육교사 일인당 아동수를 보면 직장내 탁아시설의 경우 교사 일인당 8.1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민간개인 보육시설에서는 11.9명, 민간법인에서는 12.5명, 국공립 탁아시설에서는 14.8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가장 많은 아동들을 돌보고 있었다. 보육시설의 질은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수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할때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재원조달현황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93.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의 보조(22.7%)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법인의 경우는 보육비가 53.0%, 정부보조가 45.2%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비가 57.1%, 정부보조가 41.5%로 민간법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았는데 모든 보육시설에서 원장이 있었으며, 총무가 있는 곳은 31.2% 였으며, 교사는 96.4%의 보육시설에서 있었으나, 보조원은 12.3%의 보육시설에서만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9.5%의 보육시설에서만 있다고 응답하여 간호사가 있는 보육시설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보육시설의 영양사 배치 현황을 보면 영양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3개소로 전체의 13.0%,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7.0% 였다. 전은 1994년의 조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6.9%, 민간시설의 8.3%만이 영양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¹²⁾ 이와 비교할 때 영양사의 배치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의 보육시설 증가율을 생각할 때 보육시설내에서 영양사가 급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하겠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사 배치율은 노인복지시설의 영양사 배치율(21%)¹³⁾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영양사 배치율(15.4%)¹⁴⁾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치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2.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실태와 영양사 배치가 급식관리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의 식품이나 급식에 대한 경험은 식품에 대

〈표 3〉 보육시설의 종사자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빈도	비율(%)
원장	253	100.0
총무	79	31.2
영양사	33	13.0
교사	244	96.4
보조원	31	12.3
간호사	24	9.5
관리인	98	38.7
조리원	191	75.5
자원봉사원	25	9.9
기타	41	16.2

〈표 4〉 영양사 유무에 따른 식단관리 실태

N(%)

식단관리실태	구 분	영 양 사		총 계	
		유	무		
식단작성여부	식단작성을 한다.	31(96.9)	214(97.3)	245(97.2)	$X^2=0.016$
	하지 않는다.	1(3.1)	6(2.7)	7(2.8)	
식단작성자	원장	6(18.2)	119(54.3)	125(49.6)	$X^2=73.42^{***}$
	영양사	21(63.6)	16(7.3)	37(14.7)	
	교사	2(6.1)	44(20.1)	46(18.3)	
	조리원	1(3.0)	15(6.9)	16(6.4)	
	기타	3(9.1)	25(11.4)	28(11.1)	
식단작성주기	일주일에 한번	13(39.4)	110(50.2)	123(48.8)	$X^2=3.225$
	10일에 한번	1(3.0)	3(1.4)	4(1.6)	
	한달에 한번	14(42.4)	88(40.2)	102(40.5)	
	계절마다 한번	4(12.1)	12(5.5)	16(6.4)	
	기타	1(3.0)	6(2.7)	7(2.8)	
식단의 종류	일회용식단	21(65.6)	133(61.3)	154(61.8)	$X^2=0.467$
	회전식식단	11(34.4)	84(38.7)	95(38.2)	
식단작성시 우선 고려하는것	아동의 기호도	4(12.1)	69(31.8)	73(29.2)	$X^2=8.753$
	조리방법과 시간	2(6.1)	10(4.6)	12(4.8)	
	가격	2(6.1)	3(1.4)	5(2.0)	
	균형잡힌 영양	25(75.8)	131(60.4)	156(62.4)	
	배식방법과 편이성	0(0.0)	4(1.8)	4(1.6)	

chi-square test에 의한 차이가 있음. * P<0.05, *** P<0.0001

한 기호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음식과 관련된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 학령전 아동들의 식품에 대한 태도는 부모와 형제 등 가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서 가정에서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기준이 되어서 아동들의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⁵⁾. 그러나 여성들의 취업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맡겨진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9-10시간을 탁아 시설에서 보내게 되며 적어도 1회 이상의 식사와 2회 이상의 간식을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의 급식과 영양관리는 아동들의 식습관 형성과 성장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문적인 관리자에 의한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각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미리 계획된 식단을 준비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재료의 구매계획이나 조리계획, 작업계획등에 영향을 주고, 같은 음식의 잦은 중복을 피하게 해주므로 식사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본다.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식단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4) 전체의 97.2%에서 식단을 작성한다고 대답하여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식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사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외는 달리 식단을 작성하는 사람의 경우는 차이가 있었는데(p<0.0001), 영양사가 있는 경우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63.6%였으나, 영양사가 없는 경우는 원장이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54.3%로 나타나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도 원장이 직접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18.2%나 되어서 보육시설 영양사의 고유업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교사가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는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서는 20.1%나 되었고, 영양사가 있을 때는 6.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육시설의 경우 원장과 교사가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74.4%나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에 대해 식단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식단작성주기는 영양사 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작성하는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번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계절마다 한번 작성하는 경우는 12.1%로 가장 적었다.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작성하는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한번 작성하는 경우가 40.2%로 나

〈표 5〉 영양사 유무에 따른 급식관리 실태

N(%)

급식관리현황		영양사		총 계	significance
		유	무		
식단작성시 어려운점	아동들이 잘 먹지 않는 것	15(51.7)	67(33.2)	82(35.5)	$X^2=7.743$
	음식과 식품에 대한 지식 부족	7(24.1)	59(29.2)	66(28.6)	
	아동들의 기호 파악	5(17.2)	22(10.9)	27(11.7)	
	조리법에 대한 지식부족	0(0.00)	5(2.5)	5(2.2)	
	식단작성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2(6.9)	49(24.3)	51(22.1)	
현재급식하고 있는 식단형태	밥+국(찌개)+반찬1+김치	5(15.2)	32(14.6)	37(14.7)	$X^2=9.873$
	밥+국(찌개)+반찬2+김치	22(66.7)	172(78.5)	194(77.0)	
	밥+반찬1+김치	0(0.00)	1(0.5)	1(0.4)	
	밥+반찬2+김치	4(12.1)	13(5.9)	17(6.8)	
	밥(일품요리)+반찬1+김치	2(6.1)	1(0.5)	3(1.2)	
식단작성시 기준영양량 유무	기준영양량이 있다.	12(38.7)	38(17.6)	50(20.3)	$X^2=7.043^{**}$
	기준영양량이 없다.	19(61.3)	177(82.3)	196(80.0)	
급식의 조리담당자	전담조리원	28(84.9)	163(74.8)	191(76.1)	$X^2=18.791^{***}$
	파트타임 조리원	0(0.0)	9(4.1)	9(3.6)	
	교사들이 교대로 담당	2(6.1)	21(9.6)	23(9.2)	
	영양사가 담당	3(9.1)	1(0.5)	4(1.6)	
	기타(자원봉사자, 실습생)	0(0.0)	24(11.0)	24(9.6)	

chi-square test에 의한 차이가 있음. * P<0.05, ** P<0.01 *** P<0.001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식단체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단 작성시 어려운점은 모든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이 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51.7%)에서 없는 곳(33.2%)보다 더욱 아동들이 잘 먹지 않는것을 어렵다고 답하여서 아동들의 식사섭취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음식과 식품에 대한 지식(29.2%)이나 식단작성방법에 대한 지식(24.3%)이 부족함을 나타내어서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의 식단관리자의 경우 식단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불충분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급식하고 있는 식단의 형태는 전체의 77.0%가 밥과 국 또는 찌개 및 2종류의 부식과 김치를 급식하고 있어서 이러한 1식 3찬 형태가 보육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급식되는 형태로 보였다. 그러나, 국물이 없는 형태의 급식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7.2%나 되었고, 부식이 한가지로 응답한 경우도 14.1%나 되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을 작성할때의 기준 영양량 유무는 기준으로 하는 영양량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20.3%에 불과하였

고, 80.0%는 없다고 답하여서 식단작성시 기준영양량이 없이 대략적인 식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비해 2배 이상의 보육시설에서 기준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에서 조차 기준영양량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영양관리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서의 급식관리와 영양관리에 적합한 기준확보와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식시 조리담당자는 전담조리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6.1%로 가장 많았고 이 비율은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대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 6.1%, 없는 경우에 9.6%로 나타나 교사들이 교육업무 이외의 조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양사가 직접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9.1%로 나타나서 영양사의 업무구분이나 영양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나타내었다.

영양사 유무에 따른 배식관리 현황을 보면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았다. 급식시 일인분 분량은 일인당 필요로 하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중요하지만

〈표 6〉 영양사 유무에 따른 배식관리현황

(%)

내 용	구 분	영 양 사		전 체
		유	무	
급식시 일인분 분량의 결정	저울을 사용한다.	0.0	14	12
	집기를 사용하여 일정량을 배식한다.	45.5	33.0	34.7
	경험에 의해 어렵짐작으로 한다.	45.5	53.2	52.2
	별도로 일인분량을 결정하지 않는다.	3.0	10.1	9.2
	기타	6.1	2.3	2.8
조리된 음식의 보온방법	보온고나 보냉고 이용	12.1	15.7	15.2
	가열대 위에 배식이 끝날때까지 둔다.	42.4	43.3	43.2
	특별한 방법이 없다.	24.2	30.0	29.2
	기타	21.2	11.1	12.4

〈표 7〉 급식관리실태 평가

평 가 항 목	N	Mean	Std Dev
월별 또는 주별식단을 미리 가정에 사전통보한다.	243	58.4	31.8
식단작성시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양과 종류를 고려한다.	247	68.8	14.8
아동들의 식단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준비되어 있다.	249	30.4	26.2
간식으로 매일 우유를 준다.	252	66.4	22.8
식단과 간식은 항상 계획한대로 실시되고 있다.	252	68.4	17.8
다양한 조리를 위한 주방기구가 충분히 있다.	251	48.6	22.8
아동들에게 적합한 식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253	67.6	17.6
아동들의 활동실과 분리된 식당이 있다.	250	25.2	33.0
현재의 식당시설 및 주방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252	30.8	25.6
음식이 위생적으로 준비 및 보관되고 있다.	253	64.6	17.6
식사나 간식시간 전에 반드시 아동들의 손을 씻도록 한다.	253	73.6	14.6
영양사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있다.	246	11.8	24.8
매일 각 아동들의 식사섭취 상태와 남은 음식을 점검하고 있다.	253	68.8	18.8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예방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있다.	253	68.8	17.2
즐거운 분위기에서 급식과 간식이 이루어진다.	253	72.6	12.8
다양한 조리를 하기위한 기술이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	251	40.8	24.8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52.2%는 경험에 의해 어렵짐작으로 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일인당 제공되는 영양량의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집기를 사용하여 일정량을 배식하는 경우는 영양사가 있을 때 45.5%로 영양사가 없는 경우인 33.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된 음식을 배식시 보온하는 방법은 가열대 위에 계속 두는 경우가 43.2%로 가장 많으나, 보온고나 보냉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15.2%로 낮았고,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9.2%나 되어 적은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급식관리 현황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를 구한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나타낸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식단을 미리 가정에 배부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급식내용을 전달하고 가정과 보육시설의 식단의 중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급식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 보육시설은 58.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을 작성할때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양과 종류를 고려하는가에 대해서는 68.8점으로 나타나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들의 나이에 따라 다른 식단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0.4로 낮은 점수를 보여서 나이에 따른 식단고려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가장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은 식사전 손씻기(73.5점)로 나타났으며 급식과 간식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양사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아동들의 활동실과 분리된 식당

〈표 8〉 구매관리 현황

구매관리 현황	구 분	빈 도	비율(%)
식품비의 예산	10% 미만	17	75
	10-20%	88	38.8
	20-30%	72	31.7
	30% 이상	50	22.0
식품재료 구입장소	도매시장	65	25.8
	소매시장	133	52.8
	중간상인	30	11.9
	기타	21	9.5
식품재료의 구입방법	직접구입	224	88.5
	수의계약	21	8.3
	기타	8	3.2
식품구매횟수	매일 필요량을 구입	117	46.2
	일주일에 2-3회 구입	78	30.8
	일주일에 1회 구입	29	11.5
	그때 그때 필요한 것 구입	18	7.1
	기타	11	4.3
구매담당자	원장	116	46.0
	영양사	9	3.6
	총무	18	7.1
	조리원	76	30.2
	기타	33	12.7

〈표 9〉 식품 구매 장소 N(%)

식품종류	구 매 장 소		
	도매시장	소매시장	중앙구매
쌀	71(31.6)	137(60.9)	17(7.6)
국수	41(21.6)	137(72.1)	12(6.3)
잡곡	38(20.2)	133(70.7)	17(9.0)
감자 및 고구마	69(32.1)	134(62.3)	12(5.6)
쇠고기	37(17.2)	166(77.2)	12(5.6)
돼지고기	38(18.1)	162(77.1)	10(4.8)
닭고기	34(17.2)	152(76.8)	12(6.1)
햄/소시지	53(26.4)	136(67.7)	12(6.0)
두류 및 두부	28(13.2)	171(80.7)	13(6.1)
생선	36(18.4)	144(73.5)	16(8.2)
오징어	37(18.9)	145(74.0)	14(7.1)
달걀/메추리알	46(21.6)	154(72.3)	13(6.1)
우유	66(31.1)	126(59.4)	20(9.4)
아쿠르트	63(30.9)	123(60.3)	18(8.8)
아이스크림	33(20.6)	114(71.2)	13(8.1)
녹황색채소(당근, 깻잎 등)	49(23.7)	146(70.5)	12(5.8)
담색채소(배추, 무우)	50(23.8)	148(70.5)	12(5.7)
미역, 김	60(28.2)	138(64.8)	15(7.0)
과일	62(29.1)	136(63.8)	15(7.0)
과자, 케익, 떡	43(20.4)	153(72.5)	15(7.1)

이 있는 경우도 적었다(25.2). 또한 다양한 조리기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식당 및 주방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8점).

3. 영유아 보육시설의 구매 및 설비관리 실태

식품의 구매장소는 대부분의 식품을 도매시장 보다 소매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매시장에서 많이 구매한다고 응답한 식품으로는 감자 및 고구마가 32.1%로 가장 많았고, 쌀이 31.6%, 우유가 31.1%로 나타났다. 소매시장에서 구입하는 식품으로는 두류 및 두부가 73.5%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77.2%와 77.1%, 생선이 73.5%로 나타나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을 소매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중앙구매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식품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조리기구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각 보육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조리기구의 종류와 갯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아동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급식기기로는 냉장고, 썰크대, 식기와 식판으로 90% 이상의 확보율을 보였다. 그러나, 다량조리를 위한 취만기는

〈표 10〉 급식기기 및 설비 보유실태

(%)

기기 및 설비	유		무		평균갯수 (평균±표준편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반기	190	75.1	63	24.9	1.09±0.93
레인지	217	85.8	36	14.2	1.16±0.85
가스국솥	111	43.9	142	56.1	0.70±1.13
식기세척기	23	9.2	227	91.9	0.09±0.32
식기소독기	105	42.0	145	58.0	0.4±0.5
싱크대	249	98.4	4	1.6	1.3±0.7
작업대	225	88.9	28	11.1	1.0±0.5
배식대	144	57.1	108	42.9	0.6±0.7
식기보관고	161	64.1	90	35.9	0.8±0.8
냉장고	249	98.4	1	1.6	1.3±0.6
냉동고	104	41.6	146	58.4	0.4±0.6
창고	124	49.2	128	50.8	0.5±0.6
저울	117	29.2	177	70.8	0.3±0.5
운반차	45	18.1	204	81.9	0.2±0.5
식기와 식판	240	94.9	13	5.1	95.1±60.0

〈표 11〉 장표류 관리 현황

종 류	유		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식단표	237	93.7	16	6.3
급식일지	87	34.4	166	65.6
위생점검일지	54	21.3	199	78.7
영양가산출표	7	2.8	246	97.2
검식일지	5	2.0	248	98.0
주문서	49	19.4	204	80.6
납품서	65	25.7	188	74.3
표준조리표	25	9.9	228	90.1
작업시간표	19	7.5	234	92.5
원가계산표	42	16.6	211	83.4

75.1%가, 가스국솥은 43.9%만이 확보하고 있어서 대량 조리를 위한 기기의 보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기와 기구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식기 보관고의 확보율도 64.1%로 낮았으며, 식기소독기의 경우도 42.0%의 보육시설만이 보유하고 있었고 91.9%의 보육시설에서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응답하여 식기세척기의 보유율이 매우 낮았다. 배식대를 갖고 있는 경우는 57.1% 였으며, 표준화된 급식관리를 위해 필요한 저울이 있는 곳은 29.2% 로 매우 낮았다. 이것은 일부의 보육시설에서 아동용 식기대신 빈 도시락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도 낮은 비율로 보여서, 위생적인 다량조리를 위한 조리기구의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각 보육시설의 장표류의 현황은 〈표 11〉과 같아서 식단표의 경우, 93.7%의 급식소에서 식단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식일지는 34.4%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급식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보육시설이 많았다. 위생점검일지는 급식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해주는 장부이며, 단체급식시설에서 위생검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장부이지만 21.3%의 보육시설만이 위생점검일지를 갖고 있어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지는 영양가 산출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영양가 산출표를 갖고 있는

〈표 12〉 영양사 유무에 따른 급식비 및 식수인원

영양사 배치현황		유	무	F 값
월 총식품비(천원)		2,399.40±1,908.74 ¹⁾	2,022.38±3,193.01	2.80
일일 일인당 급식단가 (원)	주식비	308.27±222.32	359.38±325.39	2.14
	부식비	613.00±556.26	562.88±313.87	3.14
	간식비	608.78±271.80	599.10±218.63	2.80
	총 액	1,725.00±1,549.92	1,383.68± 534.64	8.40
평균식수인원 (명)	아 침	39.6±36.2	28.0±30.7	1.39
	점 심	89.7±41.5	67.5±39.4	1.11 ^{**2)}
	저 녁	30.5±40.3	16.9±21.5	3.51
	간 식	88.1±61.8	65.2±40.7	2.31 [*]

1) 평균±표준편차

2) 영양사 유무에 따라 t-test 결과 차이가 있음. *P<0.05, **P<0.01

〈표 13〉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급식비의 비교

	민간개인	민간법인	국공립	직장내
일일 일인당 급식단가(원)	1,366.3± 604.4	1,524.4±1125.7	1,449.9± 363.5	1,220.3± 336.1
주식비(원)	440.3± 415.4	318.0± 260.8	317.9± 249.5	350.0± 212.1
부식비(원)	558.8± 244.5	591.4± 483.7	577.5± 265.4	450.0± 212.1
간식비(원)	542.7± 250.6	575.2± 198.8	700.7± 195.8	550.0± 70.7
월 식품비(천원)	914.1±1,113.3	2,745.5±4,724.2	2,646.5±1,742.7	1,525.0±0± 568.6

평균±표준편차

보육시설은 2.8%에 불과해서 아동들에 대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양가 산출표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급식의 전반적인 됴됨이를 나타내 주는 검식일지의 확보율도 매우 낮아 2.0%에 불과해서, 장표류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표준조리표와 작업시간표를 갖고 있는 보육시설도 9.9%와 7.5%로 낮게 나타났으며, 원가 계산표를 갖고 있는 경우도 16.6%로 나타나서 장표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보육시설 유형과 영양사 배치 따른 급식비 관리 현황

영양사의 배치 유무에 따라 급식비의 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12〉에 나타난 것과 같았다. 월 총 식품비는 영양사가 있을 때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평균 식수 인원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을 때 아동 일일 일인당 급식단가에서 주식비는 평균 308.27원으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의 주식비인 359.38원 보다 낮았으며, 반면에 부식비는 영양사가 있

을때는 평균 613.00원, 없을때는 562.88원으로 나타나서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을 때는 주식보다 부식비의 비중이 높아서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비해서 보다 충분한 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급식비의 운영을 비교해 본 결과 일일 일인당 급식단가는 직장내 보육시설이 평균 1,220.3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민간 법인시설에서 가장 높았다. 주식과 부식 및 간식비로의 사용현황을 보면 민간개인의 경우 주식비의 비율이 전체 급식비의 32.2%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식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직장내 시설로 28.7%, 국공립이 21.9%, 민간법인이 20.9%로 나타나서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급식비의 운영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른 급식비의 보조현황은 〈표 14〉와 같았다. 정부나 법인의 급식비 보조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65.5%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86.5%로 가장 급식비 보조율이 높았고, 민간 법인의 85.4%가 급식비 보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조가 없는 보육시설이 74.7%로 나타나서 민간법인이나 국공립 보육시설과 차이가 있었다.

〈표 14〉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급식비의 보조현황

N(%)

		전체	민간개인	민간법인	국공립
정부나 법인의 급식비 보조 유무	보조가 있다.	154(65.5)	20(25.3)	70(85.4)	64(86.5)
	없다.	81(34.5)	59(74.7)	12(14.6)	10(13.5)
급식비 보조액의 수준	적당하다.	33(22.8)	1(4.8)	16(25.0)	16(26.7)
	적은편이다.	96(66.2)	15(71.4)	45(70.3)	36(60.0)
	많은편이다.	3(2.1)	0(0.0)	1(0.7)	2(3.3)
	잘모르겠다.	13(9.0)	5(23.8)	2(1.4)	6(10.0)
급식개선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문	급식비 보조증액	118(52.4)	52(73.2)	38(47.5)	28(37.8)
	주방시설비 보조	35(15.6)	1(1.4)	15(18.8)	19(25.7)
	조리기기구입	8(3.6)	1(1.4)	2(2.5)	5(6.8)
	영양사 급여지원	45(20.0)	12(16.9)	17(21.3)	16(21.6)
	식단제공	19(8.4)	5(7.0)	8(10.0)	6(2.5)

〈표 15〉 급식비 보조유무에 따른 급식비의 차이

급식비보조	일일 일인당 급식비(원)	주식비(원)	부식비(원)	간식비(원)	월식품비 총액(천원)
유	1,503.9±849.5 ¹⁾	352.2±335.9	585.5±387.4	622.6±210.6	2,563.9±3600.0
무	1,292.6±553.3	365.5±265.5	536.3±263.6	552.7±250.2	1,124.4±1151.4
F값 ²⁾	2.19*	0.09	0.99	1.91	4.28****

1) 평균±표준편차

2) 급식비 보조유무에 따라 t-test에 의한 차이가 있음. *P<0.05, ****P<0.0001

급식비 보조액의 수준은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71.4%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민간법인도 70.3%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급식비 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보조액의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보육시설 역시 급식비 보조액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26.7%로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60.0%의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급식비 보조액의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급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는 전체의 52.4%가 급식비의 보조증액이라고 응답하여서 급식비의 보조증액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보육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73.2%가 급식비 보조증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법인(47.5%)이나 국공립(37.8%)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민간개인 보육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급식비 보조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양사 급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20.0%가 영양사 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민간개인 보육시설(16.9%) 보다는 국공립과 민간법인 보육시설에서 영양사 급여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식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8.4%에 불과 했는데 이것은 식단제공 보다 급식비나 영양사 급여, 주방시설비 보조등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정부나 법인의 급식비의 보조유무에 따른 급식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았다. 일일 일인당 급식비는 급식비 보조가 있는 보육시설에서 평균 1503.9원으로 나타나서 없는 경우인 1292.6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급식비 보조에 따른 주, 부식비 및 간식비의 차이는 주식비와 부식비에서는 급식비 보조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급식비 보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비나 부식비와는 달리 간식비에서는 유의성은 없었으나 급식비 보조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급식비 보조를 받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간식비가 622.6원으로 급식비 보조가 없는 보육시설의 간식비인 552.7원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 식품비 총액 역시 급식비 보조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급식비 보조가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256만3천원으로 급식비 보조가 없는 보육시설인 112만4천원에 비해 높았다.

IV. 요약 및 제언

1.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은 보육교사 일인당 보육아동수를 통해 조사하였는데 민간 개인 시설이 평균 11.9명, 민간 법인이 12.5명, 국공립이 14.8명, 직장내 탁아시설이 8.1명으로 나타나서 직장내 탁아시설에서 교사 일인당 담당 아동의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재원조달현황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93.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의 보조(22.7%)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법인의 경우는 보육비가 53.0%, 정부보조가 45.2%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비가 57.1%, 정부보조가 41.5%로 민간법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보육시설의 영양사 배치 현황은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이 33개소로 전체의 13.0%, 없는 곳이 87.0%로 나타나서 보육시설내에서 영양사가 급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았다.

3.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97.2%에서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영양사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식단작성자는 시설내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는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63.6%였으나,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육시설의 경우 원장과 교사에 의한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74.4%나 차지하고 있었다.

급식시 조리담당자는 전담조리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6.1%로 가장 많았고 이 비율은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의 6.1%, 없는 보육시설의 9.6%에서는 교사들이 교대로 급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교육업무 이외의 조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양사가 직접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9.1%로 나타나서 영양사의 업무구분이나 영양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나타내었다.

식단작성주기는 영양사 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작성하는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작성하는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아서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식단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단을 작성할때의 기준 영양량 유무는 기준으로 하는 영양량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20.3%에 불과하였고, 80.0%는 없다고 답하여서 식단작성시 기준영양량이 없이 대략적인 식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

다.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비해 2배 이상의 보육시설에서 기준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사가 있는 보육시설에서 조차 기준영양량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절한 영양관리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였고, 보육시설에서의 급식관리와 영양관리에 적합한 기준확보와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식관리 현황에서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없는 곳에 비해 집기를 사용하여 일정량을 배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경험에 의해 배식하는 비율이 낮았다.

5.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현황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를 구한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나에 대한 점수는 58.4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아동들의 나이에 따라 다른 식단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0.4로 낮은 점수를 보여서 나이에 따른 식단고려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가장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은 식사전 손씻기(73.5점)로 나타났으며 급식과 간식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양사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아동들의 활동실과 분리된 식당이 있는 경우도 적었다.(25.2) 또한 다양한 조리기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식단 및 주방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8점).

6. 현재 급식하고 있는 식단의 형태는 전체의 77.0%가 밥과 국 또는 찌개 및 2종류의 부식과 김치를 급식하고 있어서 이러한 1식 3찬 형태가 보육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급식되는 형태로 보였다. 그러나, 국물이 없는 형태의 급식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7.2%나 되었고, 부식이 한가지로 응답한 경우도 14.1%나 되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영양사의 배치 유무에 따라 급식비의 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월 총 식품비는 영양사가 있을 때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아동 일인 일일당 급식단가에서 주식비는 평균 308,27원으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의 주식비인 359,38원 보다 낮았으며, 반면에 부식비는 영양사가 있을때는 평균 613,00원, 없을때는 562,88원으로 나타나서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을 때는 주식보다 부식비의 비중이 높아서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비해서 영양사가 배치되었을 때 보다 충분한 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8.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급식비의 운영을 비교해본 결과 일일 일인당 급식단가는 직장내 보육시설이 평균 1,220.3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민간 법인시설에서

가장 높았다. 주식과 부식 및 간식비로의 사용현황을 보면 민간개인의 경우 주식비의 비율이 전체 급식비의 32.2%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식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직장내 시설로 28.7%, 국공립이 21.9%, 민간법인이 20.9%로 나타나서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급식비의 운영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9. 급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는 전체의 52.4%가 급식비의 보조증액이라고 응답하여서 급식비의 보조증액을 가장 바라고 있었으며 보육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73.2%가 급식비 보조증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법인(47.5%)이나 국공립(37.8%)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민간개인 보육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급식비 보조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 영양사 급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20.0%가 영양사 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민간개인 보육시설 보다는 국공립과 민간법인 보육시설에서 영양사 급여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식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8.4%에 불과 했는데 이것은 식단제공 보다 급식비나 영양사 급여, 주방시설비 보조등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전국 253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실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앞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아동기의 영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영양사에 의한 급식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 영양사가 배치되었을 때 보다 장기적인 식단의 계획과 기준영양량이 확보되었으며, 급식비의 사용에서도 주식비 보다는 부식비에 많은 비용을 사용해서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의 경우 원장이나 교사들이 식단을 작성하고 있고 교사들이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약 10% 정도로 나타나서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20.0%에서 영양사 급여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보육시설의 영양사 배치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영양사의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의 보육시설의 경우 식단작성이나 급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과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급식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현재의 보육시설의 급식관리 현황을 보면 식단을 사전에 가정에 통보하는 것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

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리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식단의 지원보다 급식비의 보조증액을 바라고 있었으므로 급식비의 보조증액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으며, 동시에 급식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도와 급식비의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양옥승, 김영옥 외, 각국의 탁아제도 비교연구, 창지사, 1996
2. 이소희, 보육교사 수요체계와 공급체계의 적정선 검토 및 개선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권, 1995
3. 정기원, 오미영, 안현애,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4. 김의영, 아동보육론, p30, 동문사, 1997
5. Wright DE, Radcliff JD, Parent's perception of influence on food behavior development of children attending day care facilitie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4(4):198-201, 1992
6. Pipes PL, Trahms CM, Nutrition in infancy and childhood, 5th ed., Mosby
7. 보건복지부령 제 1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5년 1월 6일
8. 광동경, 이혜상 외, 보육시설 급식소의 운영현황 및 급식실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2): 243-253, 1996
9. 광동경, 이혜상, 양일선, 서울시내 탁아기관의 급식관리 실태평가, 한국조리과학회지 7(4):103-109, 1991
10. 이혜상, 탁아기관 급식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11. 이혜상, 모수미, 서울시내 번두리 저소득지역 유아원 어린이의 영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7-48, 1988
12. 전인규, 어린이집의 급식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4년
13. 김화영, 양은주, 원혜숙, 노인복지시설의 급식관리 및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3):331-339, 1997
14. 정혜경, 김종연, 아동 복지시설의 급식 운영 실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4):401-409, 1997